

# 녹색법률센터 2020 활동보고서



# 녹색법률센터

## 2020 활동보고서

### 녹색법률센터 소개

1999년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고,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녹색연합 전문기구 '환경소송센터'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녹색법률센터'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미군비행장 소음소송, 골프장소송, 서울대기오염소송, 밀양송전탑 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미래세대소송, 자연의 권리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람과 자연에게 확장되도록 사회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입법활동과 환경법률학교, 예비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현재 총 회원수는 145명이며,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가 소장을 맡고 있고,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가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운영위원 변호사가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소송 등을 수행하고,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 등을 통하여 녹색연합 전국조직의 법률자문을 전담하고, 건강피해, 생태계 훼손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민원상담 지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인권 분야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나아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녹색법률센터

## 2020 활동보고서

###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공익변호 활동

- 고흥 국가비행시험장 건설사업 취소 행정소송 대리
  - 소송대리: 최재홍 변호사(부소장·법무법인 자연)
- 산업자원통상부를 상대로 삼척블루파워(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대리
  - 공동 소송대리 : 박지혜 변호사(운영위원·기후솔루션), 최재홍 변호사(부소장·법무법인 자연)
- 광양만 포스코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있었던 데이터 해석 오류로 인해 고소당한 광양만녹색연합 활동가 명예훼손소송 대리
  - 소송대리 : 배영근 변호사(운영위원·법무법인 자연)
- 폭우, 섬진강댐 수문관리 및 제방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섬진강권역 남원·구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조사, 증거보전, 조사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법률자문: 김지혜 변호사(운영위원·법무법인 덕수), 배영근 변호사(운영위원·법무법인 자연)
- 도시공원일몰제를 활용한 청주매봉공원 개발 실시계획인가 관련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측 법률자문
  - 법률자문: 최재홍 변호사(부소장·법무법인 자연), 지현영 변호사(운영위원·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운영위원·사단법인 두루)

# 녹색법률센터

## 2020 활동보고서

### ○ 시민 환경민원상담 지원

- 보령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양평군 산림훼손 등 전국 각지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 24명의 운영위원 변호사가 순번을 정하여 환경민원상담 지원

### ○ 녹색연합 지역조직 법률자문 지원

- 본부 녹색연합의 3개 사업팀과 인천,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광양만, 부산, 대구경북, 원주, 8개 지역조직의 법률자문 전담
- 각 조직 별로 2-3명의 운영위원 변호사가 전담하여 지원

### ○ 환경 입법 및 제도개선 관련 지원

-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 참여
-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참여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 참여
- 그린벨트 해제 대응 의견서한 청와대 전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이슈브리프-‘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반론’ 제작 참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 발간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공동작업 참여
-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방향’ 온라인 토론회 참여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관련 법제 개선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환경·인권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 인권그룹> 활동 참여
- 석탄산업의 폐해를 알리고 석탄발전 중단 요구 활동을 하는 한국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연대체 참여

# 녹색법률센터

## 2020 활동보고서

###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주요 활동

2020년은 녹색법률센터 24명의 운영위원 변호사들이 순번제 환경민원상담과 지역 단체 법률자문 전담 등을 통해 더 활발하게 역량을 발휘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진행되어 2020년 9월에 1심 선고를 마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을 대리함으로써 탈석탄 운동에 함께 하였고, 1심 선고 시기 즈음에 발족한 한국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탈석탄 네트워크의 참여단체가 되었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건강권, 환경권,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참여 단체가 되었습니다. 해외 기후소송 사례 연구, 법리 검토 등에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였고, 수 개월간의 준비 끝에 세계인권선언의날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탈석탄이라는 범지구적인 환경 이슈부터 마을 뒷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까지 녹색법률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